

테마칼럼

생명과 밥상

여성과 소비

교단일기

스토리텔링 파워



정창권

스토리텔링으로 여는 세상

후 진로를 이쪽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만큼 지원자가 많고 경쟁도 치열하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싶다. 내가 보기엔 오히려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미래 가능성이 큰 인포메이션 스토리텔링을 공략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인포메이션 스토리텔링이란 지식과 정보에 이야기를 더해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전신나 축제, 여행, 다크, 에듀테인먼트, 인터넷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등을 들 수 있다. 요즘 인포메이션 분야에서 날이 갈수록 스토리텔링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실과 이야기가 결합된 다크콘텐츠를 보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다크콘텐츠는 주로 '사실' 부분에만 신경을 쓰고 '이야기' 부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영국 BBC의 다크콘텐츠를 보라. 이야기를 통해 얼마나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다양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컴퓨터 그래픽이나 음향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만 몰두할 뿐, 그 다크콘텐츠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 지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최근 스토리텔링은 비즈니스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각종 기업에서 활용하

는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이 그것으로, 광고나 브랜드, 디자인, 기업경영, 상품 등의 스토리텔링을 예로 들 수 있다.

요즘 광고는 스토리텔링을 이용해 간접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제품을 홍보하려 하고(ex: 화장품 광고들), 기업들도 자사의 브랜드 가치나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스토리텔링 기법을 쓰고 있다(ex: 현대그룹의 가정주영 회상 이야기). 또한 상품 개발에 있어서도 그에 얽힌 이야기를 발굴하여 들려줌으로써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ex: 제이에스티나).

한편, 스토리텔링은 산업계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음식이나 패션, 건축, 농어촌, 제조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산업에 이야기를 결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음식 스토리텔링의 경우, 각종 음식(점)에 그 유래나 역사, 조리법, 관련 인물 등의 이야기를 결합하여 먹는 사람에게 맛과 함께 감성까지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음식(점)에 이야기가 가미되면 더욱 즐겁게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음식이 될 수 있다.

향후 스토리텔링은 정치나 행정, 법정의, 교육, 과학, 종교, 스포츠, 사회복지 같은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도 널리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 스토리텔링의 경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과학 지식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고 딱딱하게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대중들은 '신기한 스콜버스'처럼 과학 지식을 한편의 이야기로 만들어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들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즉, 지식과 함께 재미와 감동까지 동시에 얻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스토리텔링은 세상의 거의 모든 곳에서 쓰이고 있다. 바야흐로 세상은 스토리텔링에 의해 부드럽고 친근하게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스토리텔링 능력은 누구나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교양필수라 할 수 있다.

또한, 초·중·고에서도 논술과 함께 이야기 창작을 가르치고, 대학의 각 전공에서도 '음식 스토리텔링', '패션 스토리텔링', '건축 스토리텔링', '의료 스토리텔링', '농어촌 스토리텔링' 등 관련 과목들을 많이 개설했으면 싶다. 그래서 자기 지식을 대중들과 원활하게 소통시킬 뿐 아니라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해주어야 한다.

<고려대 교양교직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수요 예측 실패가 부른 초유의 '정전 대란'

전국적으로 정전이 일어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15일 30도를 웃도는 늦더위로 전력 수요가 일시에 몰리면서 오후 3시부터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정전사태가 잇따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정전 대란은 전력 수요가 예측치를 크게 웃돌아 과부하를 막고 예비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당국이 일부러 단전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전력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정비'를 명분으로 많은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해 큰 피해를 불러온 것이다. 전력 수요도 제대로 예측 못 한 정부의 국가비상관리 능력에 맞춘다.

당국은 정전 대란의 이유로 늦더위를 들고 있으나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기상청은 이미 며칠 전부터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것으로 보고 폭염 주의보까지 발령한 상태다. 기상청 예보만 주목했다더라도 여름철 전력수급 기간(6월27일~9월9일)이 지나갔다면

꺼번에 전국 23개 발전소 가동을 멈춘 황당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비상 대처 능력도 엉터리다. 이날 정전은 국민에게 예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력 공급을 중단해 더 큰 피해를 불러왔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대지진과 쓰나미라는 국가적 재앙으로 절대 전력이 부족할 상황에서 돌발적인 정전이 발생하지 않은 일본에 비해 얼마나 무뎠는지 알 수 있다. 이리도 '선진국 진입' 운운할 수 있는지 부끄러울 뿐이다.

이번 정전 대란으로 국가 전반에 걸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많은 사람이 승강기에 갇히고 병원 등 응급시설의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국민이 겪은 불안감과 재산피해도 이루 말할 수 없다.

정부는 조속한 피해복구와 함께 전력 수요 예측에 실패한 책임자를 엄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구청, 주민 혈세 그렇게 낭비해도 되나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는 광주시 서구청이 청사 이전 과정에서 벌췌한 사무실 잡기를 버리거나 쓰레기와 함께 불태워 버린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더욱이 신청서에 입주하면서 수억 원을 들여 추가로 의자와 책상 등 사무용품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혈세 낭비' 논란까지 일고 있다.

1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구청 직원들이 모두 떠난 구청사 앞마당에는 사용 가능한 의자 5~6개와 간단한 수리만 하면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용 책상이 각종 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새 태극기 10여장도 서류 봉투에 고스란히 담긴 채 쓰레기 더미 속에서 나뒹굴고 있었으며, 의회 사무실에서 이용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플로어 디스크도 수십 장 발견돼 각종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졌다.

정작, 근검절약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구청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구매한 불필

을 쓰레기 취급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공무원들의 자질과 양식을 탓할 게 아니라, 자선의 주머니를 털어 산 물건이라면 이렇게 함부로 버릴 수 있겠는가.

서구청의 을 재정자립도는 22.1%로 전국 자치구 평균 55.2%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급년 초 사회복지비 예산 60억 원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공무원들의 봉급조차 줄 수 없는 형편이다. 서구가 구청사와 구 보건소 매각을 추진 중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서구청은 이번 주민 혈세 낭비 사례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를 엄히 문책해야 할 것이며, 최종 결재인인 구청장도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바른 처사다. 구의회 역시 견제와 감시 역할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견디고 새겨야 한다. 혈세가 새나간다면 구청은 망하는 길밖에 없다.

종교칼럼



서달원

신부님~ 집에 가서야제?

소속도 교우들은 하루 일과를 미사로 시작하는 분들이어서, 명절에도 어김없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 가운데 추석 명절 미사는 먼저 돌아가신 조상님과 부모, 형제, 그리고 지인들의 영혼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미사입니다. 그런데 환우분들 공동체인 아랫마을은 연세가 많으셔서 부모님들은 모두 돌아가셨지요. 자녀가 있는 분들도 없지 않지만 소수다 보니, 홀로 계시는 분들에게 명절은 부모님 생각이 간절할, 그래서 더욱 쓸쓸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사가 끝나면 성당 수녀님들과 교우들의 수고로 조촐한 점심을 함께 나누며 서로 위로움을 달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침에 추석 명절 미사를 봉헌하려 나가,

미사에 오신 교우분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그런데 연세 지극하신 교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부님~ 명절인데, 집에 가서야제?" "에! 이따 미사 끝나고 점심 후에 다녀오려고요!" 대답을 해놓고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명절날 분가에 다녀온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대답이기도 합니다만, "집에 다녀오라"고 말을 건넌 분의 입장에서 보면, 갈 곳도, 찾아올 사람도 없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에 와서 사목하는 젊은(?) 본당신부 처치까지 생각하면서

건넌 고마운 말씀이었는데,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제 입장만 생각하며 드린 속담은 대담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지요.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은 무엇보다도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시간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들이는 수고와 노고 가는데 치러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그런 것들을 모두 감내하면서 고향으로 향하는 것은 그 만남에 대한 그리움이 아닐까? 그리고 그 만남에서 얻어와야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에너지 때문 아닐까?

오늘 아침 그 여르신이 다시 말을 건네으셨습니다. "신부님~ 집에 잘 다녀오셨어?" "에,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 신부는 교우들의 사랑을 먹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고흥 소속도성당 주임신부>

기고



오병기

남도의 보석, 관광산업을 성장시키자

각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다. 이처럼 남도에 묻혀있는 보석 같은 관광 자원은 스스로 빛을 낸다. 하지만, 아직 세공을 거치지 않은 투박한 원석도 있다. 좋은 자원이 존재하지만, 다듬어지지 않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분석한 바로는 전남의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또 성장률도 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광산업 자체가 가지는 잠재력과 고용창출력, 거기에 전남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수많은 자원을 보탠다면, 앞으로 전남의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견인의 커다란 역할을 해낼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남도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보여줄까 고민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남은 경제적 역량이 충분치 않아, 지역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관광산업을

양적·질적으로 성장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관광산업을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미래형 산업이다. 관광산업이 성장하면, 그로 인해 1차산업인 농수축산산업이 성장하고, 2차산업인 제조업이 성장하게 된다. 결국, 국가 차원에서 지역의 관광산업이 향후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므로, 남도의 관광산업 성장에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첨언하자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최하게 된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나 여수 세계박람회,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단순히 자치단체가 유치한 메가이벤트가 아니다. 그 하나하나가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F1 대회는 자동차 부품산업이나 모터스포츠산업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 F1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자동차 제조업체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다.

여수 세계박람회는 우리나라가 가진 해양 자원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무궁무진한 유·무형 해양자원의 활용을 통한 국가 경제 제도와약을 이끌어 낼 것이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기후변화시대,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것이며, 이를 통해 도시지역에도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는 미래형 정원이나 녹화사업, 정원디자인산업 등 지식기반형 서비스산업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남 지역에서 진행되는 이들 국제행사는 단순히 지역적 차원의 행사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미래와 직결되므로, 국가 재정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도가 가진 천혜의 자원은 산업화시대에도 아껴둔 우리들의 자원이다. 이 자원은 앞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분해되고, 비라도 오면 갈바닥에 달라붙어 청소도 힘들어진다. 일부 몰치각한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심을 누비며 도시를 더럽히고 있다.

그런데 왜 관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지 모르겠다. 단속은커녕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인제까지 뿌리고 주워야 하는가.

▲김희갑·광주시 동구 금동

갈바닥 덕지덕지 달라붙은 불법전단 단속 안하나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 중 광주는 위도상으로나 지형적으로 그리고 날씨와 주거비, 물가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물론 그동안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소외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더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 모두가 애정을 가지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

문화도시라는 것은 문화주체로서의 시민들의 의식이 투영된 도시의 색깔로 나타난

다. 때문에 광주시민들은 천편일률적인 가로수 정비, 공원 조성, 교통 정책, 건축물 등의 모습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유럽의 도시를 벤치마킹해 도시 정책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9월과 10월은 총장축제와 디자인비엔날레 등 청명하고 쾌적한 가을 날씨만큼이나 축제가 많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있다.

도시의 모퉁이나 유흥업소 근처 골목에 불법전단지 광고가 넘쳐난다는 것이다. 불법 광고가 길을 가득 메우면서 길이 지저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無等鼓

강강술래의 역동적인 춤과 그 속에 담긴 한(恨)은 해남 출신 이동주 시인의 '강강술래'란 시속에 잘 표현돼 있다. 여울에 물린 은어메/ 삐삐꽃 손들이 돌래를 짜면/ 달무리가 비이음 돈다/ 가아울 가아울 수우위래메/ 목을 빼면 설움이 솟고~/ 뽀자 뽀자 뽀자나보 자 강강술래.

여인네들이 춤을 추기 위해 모여있는 모습을 은어메에 비유하고 그녀들의 예쁜 손을 삐삐꽃으로 묘사한 표현이 아름답다. 여인의 한과 진양조에서 시작해 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로 점점 빨라지는 강강술래의 진행과정을 눈에 보이듯 그리고 있다.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보아 온 터라 이런 멋진 시가 탄생하지 않았나 싶다.

나주가 고향인 기자에게도 어릴적 강강술래에 관한 추억이 있다. 한가위 달밤에 동네 여인들이 모여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추었던 강강술래는 마냥 흥겨운 축제였다. 초등학교 취학전에 딱 한번 보았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강렬한 영상으로 뇌리에 각인돼 있다. 하지만 그 후로는 강강술래를 더이상 보지 못했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남의 어느 농촌에서나 흔히 볼 수 있었지만 근대화과정에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이다.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이 강강술래를 국민생활 댄스로 새롭게 만들었다는 반

강강술래



가운 소식이다. 강강술래의 원형에 힙합과 프리스타일의 춤 동작을 가미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분50초 짜리 강강술래를 따라하면 유연성과 근지구력은 물론 시간당 408 칼로리가 소비된다고 하니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도 제격이다.

진흥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해남 우수영관광단지에서 열리는 명랑대첩축제에서 경연대회를 열어 공개석상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국민층으로 강강술래를 추는 모습을 보고 싶다. /장필수 시화부처장 bungy@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circulation data.